

뜨겁게 그리고 차갑게 준비하는 미래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수

제레미 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에서는 “우리는 세계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문명사회는 더 이상 일자리가 필요 없는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던 기계의 시대를 넘어, 인간의 두뇌까지 대체하는 ‘제2의 기계 시대’를 예측한 것이다. 과연 인간의 일터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영화가 영화로 끝나지 않으려면

1984년에 나온 영화 <터미네이터>는 기계와 인간의 전쟁에서 기계가 승리하는, 개봉 당시 그냥 허무맹랑한 공상 오락영화로 큰 인기를 끌었다. <터미네이터2>에서는 인간이 승리하면서 ‘역시 기계는 기계일 뿐, 그걸 만든 인간이 어찌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극장 문을 나섰다. 1999년에 나온 영화 <매트릭스>에선 기계가 인간을 사육하며 지배하는 가상현실을 보여주고, 2015년 영화 <엑스마키나>는 천재개발자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윤리의식과 자아까지 흔드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섬뜩함을 안겼다.

<노동의 종말>이 나온 1995년만 해도 독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 영화가 영화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두려움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의 속도 속에서 느낀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 충격 이후, 최근 놀랍게 똑똑해지는 인공지능 생활가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다. 기계 기능 하나가 여러 사람 몫을 대신하는 것을 보며 모든 국가의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쓴다고 해도, 사람이 이루어낸 기술의 진보는 컴퓨터와 로봇이 대표주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서 사람을 내보내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더 빨리’ 만드는 것도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이제 사람이 고민할 일이 아니다. 기계를 당해낼 수 없다. 하지만 기계가 똑똑해져도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람이 고민해야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다. 가치는 창의적 두뇌 활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인간의 영역이다. 인간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 새로운 노하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똑똑한 기계가 대중화된 시대, 악몽의 시대가 되지 않고 꿈이 이뤄지는 시대가 되려면 인간은 자신의 잠재력, 자기 두뇌의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더 높게 열어두



고 개발해야 한다.

두뇌와 열정의 공통점

19세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사람은 뇌의 10%를 쓰고 천재는 15~20% 쯤 쓴다”고 말했다.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라고 수정했다. 어떤 수치가 진실인지 몰라도, 만약 인류가 자기 두뇌를 현재보다 0.1%만 더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어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우리 앞에 있는 정보의 양은 무한하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 모을 수 있는 데이터도 그 양을 다 가늠할 수 없게 많다. 이 광대한 정보와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상을 설명하려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기계에게 밀리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며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려면 일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일 자체에서 ‘재미’를 느껴야 한다. 이것이 열정이다. 돈이나 승진 같은 외적 보상만으로는 이런 일을 해내기 어렵다. 이제까지 없던 지식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열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다만 이 부분은 기억해야 한다. 창의성은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축적된 지식의 바탕에서 나온다. 지식의 양을 충분히 채워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면 지금 그것부터 해야 한다. 두뇌와 열정의 공통점은 ‘무한대’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접어두는 것이 먼저다.

결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귀향하던 오디세우스는 뱀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하여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이 사는 암초 해역을 지나게 된다. 오디세우스는 뱀사람들의 귀를 막고 자신을 뿔대에 묶도록 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밧줄을 풀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했고 다짐을 받았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디세우스는 풀어달라고 뉘달하지만, 뱀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단단히 묶었다. 결국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암초 해역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24시간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시대에 ‘세이렌’처럼 집중력을 방해하는 것들은 너무 많다.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소식은 예전보다 훨씬 잦게 들린다. 평판이 중요한 직업인 연예인들은 왜 굳이 자신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불법 도박에 빠져 들었을까? <자기절제 사회>의 저자 대니얼 액스트는 요즘 사람들이 예전보다 자제력이 약해졌다고 보지 않는다. 인류는 여태껏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 곧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시대에 놓이면서 매일 온갖 유혹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고 했다. 더구나 그 유혹들은 날마다 빠르게 진화한다.

자기 절제는 정말 쉽지 않고 당장 효과를 볼 수도 없는 일이지만 삶은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노력하는 작은 시간이 쌓일 때 생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도 조직적이고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매일 무언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연습을 하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왔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견딜 근육이 생긴다. 이것 자기절제의 큰 보상이다.

기술의 진보는 편리함과 ‘귀차니즘’을 동시에 극대화한다. 지금도 편리하지만 더 편리하게, 예전엔 10정도 귀찮은 것도 잘 이겨냈는데 이제 3 정도 귀찮은 것도 못 견딘다. 편리함 추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나 게으름 추구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열정은 목표를 향해 뚫어오른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끈질긴 집중력을 보이며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은 목표와 관련 없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할 줄 안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자기절제를 도구 삼아 긴 안목을 가지고 내 삶을 리셋해보자. TTA